

**M** **재테크**  
**Money**

한국에도 전적으로 장기 가치투자를 표방한 펀드가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가치투자를 표방한 펀드가 여럿 있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성장주를 편입하는 등 스타일이 모호했다.

이런 가운데 밸류자산운용이 지난날 출시한 '한국 밸류 10년투자' 주식형과 채권혼합형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기 가치투자만을 위해 설계된 상품들로, 주식형 펀드환매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자금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반응도 좋다.

# '채권수익+α'...수익률 年 10%대

## 주식·채권혼합형 '10년투자 펀드' 첫 출시 목표수익 도달때까지 보유...노후준비 적합

◇철저한 가치투자 철학 지킨다

한국시장에서 가치투자의 전도사로 잘 알려진 이재원 전무가 대표 매니저로 운용에 참여하는 '10년 투자펀드'는 철저한 장기 가치투자를 지향한다.

'가치투자'란 시장가치(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 내재가치가 제 값을 찾은 뒤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투자기법이기도 하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기업의 내재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익성은 물론 자산가치, 배당가치, 비즈니스모델 자체의 무형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6명의 분야별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기준을 고려해 저평가 우량 종목을 발굴, 펀드멘털 분석과 기업가치대비 적정 주가를 판단한다.

주식형 상품의 경우 보수율이 2.84%로 다른 주식형상품 평균치(2.5%)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향후 펀드규모가 커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수익률은 낮추는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최소 3년 이상  
가치투자의 장점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제 값'을 회복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에 편입해 장기 보유할 경우 최소한 원금이 깨질 가

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이 펀드는 가치투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편입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펀드가 3개월 이내로 설정해 놓은 환매수수료 부과기한을 3년으로 대폭 늘렸다. 때문에 가입후 1년 이전에 환매를 할 경우 이익금의 70%, 2년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 3년 미만의 경우 30%를 환매 수수료로 받는다. 단 가치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이 펀드에는 가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투자규모가 큰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가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기관자금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연 평균 목표수익률 10% 수준  
수익률 면에서 장기 가치투자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 또 단기 강세장을 노

린 모멘텀 투자에 비해 우량주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장기투자 관점에서 주식이 채권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도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다.

10년 투자펀드 역시 이런 장기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피지수와 비교해 수익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다른 주식형펀드와 달리 이 펀드의 벤치마크 대상지표는 연 5% 안팎의 채권수익률이다. 주식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시장변동성을 감안한 연평균 목표수익률이 10% 수준이고,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했을 때 복리로 누적되는 수익률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는 게 밸류운용측 관측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환율 930원 다시 붕괴

2.4원 떨어져 1달러=929.6원

원·달러 환율이 하락반전하며 930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원·엔 환율은 100엔당 840원선에 근접하며 4개월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40원 하락한 92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00원 낮은 929.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28.80원으로 밀린 뒤 역의 매수로 930원선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은행권 추격 매수로 934.7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역의가 매도로 돌아서고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자 급반락하며 93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과 재무부의 상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달러 매도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로 떨어지며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날처럼 까르루 매각자금 유입설이 제기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무버로 확인되자 큰 폭으로 반락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은 3월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 1월25일 100엔당 843.33원 이후 낙담반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건설 체감경기 악화

실사지수 70...작년 11월이후 최저

지난달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0으로 전월의 70.8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작년 11월 63.3 이후 가장 낮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지수 70.0은 3월 조사에서 나타났던 전망지수(115.7)와 45.7포인트의 차이가 나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민석 연구원은 "구매계약도 변경되면 등으로 인해 공공발주 공사가 줄면서 실제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5월 건설경기 전망지수도 93.1로 나타나 4월 전망지수보다 22.6포인트 낮았다. 지난달 공사물량지수는 81.3으로 전월보다는 3.7포인트 올랐으나 기준인 100에는 크게 못미쳐 물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1.4로 조사됐다.

지난달 공사대금 수급지수는 82.2, 자금조달지수는 86.8로 자금관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반적인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 인력수급지수(106.6)와 자체수급지수(99.3)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지수(92.1)와 자체비지수(79.5)는 낮게 나타나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신용불량자 293만명

작년말보다 4만명 줄어...정상수준 근접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정상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7%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모두 293만명으로 작년말에 비해 다시 4만명 가량 감소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난 2002년 말 263만명에서 2003년 말 372만명까지 급증한 뒤 2004년 말 361만명, 2005년 6월 말 332만명, 2005년 말 297만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감소규모는 매일 1만명 수준으로 다소 축소됐다.

이에따라 3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3천864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8%로 정부가 정상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7%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02년 말 7.1%에서 2003년 말 9.9%로 상승한 이후 2004년 말 9.6%, 2005년 6월 말 8.6%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7.71%로 7%대에 진입했다.

정부당국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60만~270만명, 생산가능인구대비 7%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전국 가구 소득격차 사상 최대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상위 20%가 소득 42% 차지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후 최저

◇소득증가율 작년보다 둔화=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30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9%에 그쳐 작년 1·4분기 증가율 2.5%에 못미쳤다.

소득분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185만8천원)은 4.1% 증가, 작년 1·4분기의 증가율 3.6%를 웃돌았다. 사업소득(66만9천원)도 3.8% 늘어나 증가율이 작년 1·4분기, 1.6%에 비해 컸다. 반면 이전소득(23만6천원)은 8.5% 늘었으나 증가율은 작년 1·4분기의 19.8%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1·4분기에 월평균 344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이 작년 1·4분기의 5.2%보다 조금 낮았다.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 이후 최저= 전국 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지난해 1·4분기의 4.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눈길을 끌었다. 교육비 지출(31만원)은 9.9%나 증가했다. 작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과 같았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교통통신 지출(34만4천원)은 1.5% 줄어들어 0.1% 감소한 주거비 지출(3만원)과 함께 지출 감소 항목에 속했다. 또 소비비지출 중 조세(6만4천원)는 7.0%, 공적연금(9.1%, 사회보험은 7.3%씩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지난 1·4분기 월평균 232만원을 소비지출로 썼다. 작년 1·4분기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1·4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1998년(-8.8%)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가구 소득분배 사상 최악=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8.36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의 소득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지난해 1·4분기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의 비중은 5.0%로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



10일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역납고에서 아시아나 보잉767기에 대장금 이미지를 입힌 '대장금호'가 공개되고 있다. 대장금 항공기는 이날 OZ711 대만편행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대장금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에 1년간 투입돼 한류를 전파하게 된다. /연합뉴스

## '대장금' 하늘을 난다

아시아나, 동남아·日·中 노선 운항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인천공항 아시아나 역납고에서 아시아나항공 강주안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최재근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금호'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대장금호는 아시아나항공 B767기 동체에 가로 13m, 세로 4m의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를 랩핑한 항공기로, 향후 1년간 대장금 열풍이 불고있는 동남아와 일본, 중국노선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시아나 관계자는 "대장금호 운항을 통해 한류 콘텐츠와 항공산업을 접목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대장금 투어'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2004년 6월부터 '대장금 기내식'이라고 불리는 공중정찬 철점반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번 대장금호 발착과 더불어 전통 기내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 현대·기아차, 대졸 신입사원 400명 뽑는다

24일까지 원서 접수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400명 수준에서 채용키로 하고 11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600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로, 올해 비경쟁 선언과 최근 비자금 수사의 여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생산, 일반

사무, 국내영업, A/S 등 전 분야에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시 희망자는 ▲연구개발부문에 설계/평가, 파워트레인, 선행개발, 전자개발, 디자인, 기획/지원 ▲생산부문에 생산관리, 생산지원, 생산기술, 품질관리, 구매/자재 ▲일반사무부문에 경영기획, 재무, 경영지원, 해외영업, 마케팅 ▲국내영업 및 A/S부문에 판매촉진, 영업지원, A/S 등 세

분야별로 지원하면 된다.

원서는 24일 오후 5시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접수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3차 신체검사 전형형을 거쳐 선발한다. 현대·기아차는 11일부터 전국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해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인력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기업 준조세 10조원

사회보험료는 16조8천억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10조원에 육박했다.

손원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10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보고서에서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광의의 부담금'이 2004년 9조9천44억으로 2003년의 8조8천193억원에 비해 1조851억(21.3%)이 늘었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나뉘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순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수수료·사용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

회보험료, 과태료, 강제적 기부금·성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의 부담금은 2000년 4조5천377억원, 2001년 6조7천120억원, 2002년 7조4천482억원, 2003년 8조8천19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며 최근 4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은 2004년 3조680억원으로 전년의 2조5천887억원에 비해 4천793억원(18.5%)이 증가했다.

협의의 부담금은 ▲2000년 1조9천931억원 ▲2001년 3조4천545억원 ▲2002년 2조8천437억원 등을 나타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보험료는 2000년 9조969억원, 2001년 10조9천507억원, 2002년 12조4천394억원, 2003년 14조2천830억원, 2004년 16조8천445억원 등으로 한해 1조~2조원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사원	고졸/경력1년	2,000~2,200	05/11	062-953-1642
윤선생영어교실	[북구점]관리선생님/상담선생님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5/12	062-526-0565
㈜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머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675-8750
㈜동천미디어	ENG카메라보(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2	062-224-0088
에스아이투어	콜센터 고객상담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2	062-224-5401
기아자동차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신입/경력 영업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2-518-1654
㈜해주주력건설	정규직 경리부/주력사업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5	062-652-4848
광남일보	비서실 정규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370-2214
광주광역시정보센터	[광주/서울]프로그램(C/S)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222-8564
O나라	사무기기, 컴퓨터, A/S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7	062-224-6073
㈜빅스테크	[광주]자재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9	032-577-3602
㈜주신전자	영업/상품출입과/배송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9	062-941-385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세계 최소 '비디오 안경' 개발

고원기술, 동공 크기 TV스크린 곧 출시



사람의 동공 크기의 초소형 TV 스크린을 넣은 '비디오 안경'이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이 스크린을 안경처럼 착용하면 대형 TV를 보는 듯한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DMB(이동멀티미디어 방송) 휴대전화 등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대형 화면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고원기술은 가로 4.2mm, 세로 4.8mm 크기의 LCD 스크린 한 쌍을 넣은 안경형 디스플레이 'MSP-209'를 다음주에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